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December 2011
Vol. IV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
(창 49: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
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
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
를 간절히 빕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마띠 교도소의 이번 성탄절은 재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쓸쓸하게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와 신문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형 사고'가 이곳 마띠 교도소에서 일어 났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를 방문 할 때마다 교도소의 책임자들로 부터 이곳 마띠 교도소에는 일반 여느 교도소와는 달리 외국인 재소자도 한명 수감되어 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들어 왔었는데, 지난달에 그 외국인 재소자가 마띠 교도소를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검문 검색이 심해진 것은 물론이고, 성탄절을 앞두고 교도소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 붙고 말았습니다. 저희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기존 경비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심각해 보이는 경비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교도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는, 저희가 재소자들과 함께 1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철창 문을 열고 재소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일을 중단 시키고 예전에 없었던 재소자의 점호를 시작합니다. 150여명의 재소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한사람씩 대조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에야 재소자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도 경직이 되는 무거운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재소자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였던 운동 시간이 당분간 중지되어,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하루종일 철창 안의 작은 방에서만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재소자들의 기대 가운데 실시 되었던 각 격실별 '농구 대회'도 금년에는 모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 운동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재소자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7명의 여재소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무엇인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준비한 엠프와 스피커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여재소자들에게는 예배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 재소자들과 함께



출소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예배 시간마다 여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로 인하여 여 재소자들과 더 많은 대화로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더불어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별도로 전해주며 주의 사랑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띠 교도소의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여 재소자 5명이 마침내 모든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는 5명 중의 3명은 같은 범죄로 인해서 이곳 마띠 교도소에서만 10년을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벽에다 날짜를 지워가며 애타게 기다린 출소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보고 싶은 바깥 세상이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많은 두려움이 이들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남편들은 다 떠나 버렸고,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녀들을 볼 생각을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막막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출소하는 이들이 앞으로는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소하기전 이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드릴 마지막 예배를 준비 했습니다. 마띠 교회 교인들도 모두 함께 가서 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하여 평소보다 많은 인원과 함께 여 재소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출소에 필요한 여러가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비누, 샴프, 로션'을 준비했고, 그리고 새 사람, 새 출발을 의미하는 '신발' 과,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 가라는 뜻으로 현지어로 된 '성경'을 남아 있게 될 재소자를 포함하여 모든 여 재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눈물로 감사해 하며, 아쉬어 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고, 앞 날을 축복해 줄 때에 여 재소자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설레임 가운데 새출발을 기다리는 저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남은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전 5:17)

 마띠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11월 중에 있는 '아버이 날' 학교 행사에 꼭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었습니다. 2년전 어렵게 개교를 한 이래로 그동안 행사다운 행사를 치루지 못하다가, 학교의 모습이 제법 갖추어 짐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아버지 날에 대한 기억은, 어릴적에 학교에서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 것과 교회에서 아버지 주일을 보낸 것이 전부이어서, 민다나오의 마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아버지 날을 어떻게 지날까 하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정기 예배가 계획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마띠 고등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학생 대표로부터 꽃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선물을 받는등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아버지 날 행사



말씀을 전하며

교실마다 예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행사를 위하여 임시 단상까지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느때와는 많이 다르게 좋아 보이는 옷들로 깨끗하게 단장들을 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장소가 좁은 이유로 학부모들을 자리에 우선으로 앉게하고,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많은 관심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 날' 행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필리핀 국가를 다함께 부르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교장 선생님의 학부모님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띠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와 교육부 책임자들이 와서 축하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4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2)

본격적인 본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각 학년별 성적 우수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만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을 받는 자녀와 함께 부모님들도 함께 단상에 올라 오도록 해서 격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런 아들, 딸이 상장을 받을 때에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마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띠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우수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학교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원한 음료수와 간식을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님들과 나누며 기쁨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상장 수여 이후에는 학년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모든 학부모들을 단상으로 올라오게 한 이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준비한 편지를 부모님께 드리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룹별 학생 대표가 부모님 은혜와 관련이 있는 노래를 앞에서 부르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전해준 편지를 단상에서 읽습니다. 감격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까지도 부모님을 안고 많이 울입니다. 앉아서 이를 보고있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훌쩍 훌쩍 울고 있습니다. 모든 그룹의 부모님들이 단상에서 편지를 읽는 순서를 마칠 때까지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가 되는 참으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순서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단상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7명의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단상 위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대표 학생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께 준비한 편지를 읽습니다. 시작부터 편지를 읽는 학생이나 자리에 앉아 듣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매우 크고 절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왔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으며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 10:18)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포함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꽃을 받으며 아버지 날의 모든 순서를 잘 마치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작은 학교가 사랑과 나눔으로 인하여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이면서도 주 정부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학교가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인지 ‘저희의 날’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사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부모님들과 외부인들로부터 마띠 고등학교에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둥과 천장만 있던 학교가 교실과 교무실의 모양이 서서히 갖추어지고, 모든 학생들의 기대 속에 도서실도 세워지리라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마띠 지역 사역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의 하나인 차량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1월 중에는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내년 2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에 있음을 알고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2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홀히 여길 자에게 공홀을 베푸느니라

(출 33:18,19)

기도 요청

- 해변교회, 마띠 학교, 교도소의 성탄절 준비를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과 도서실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